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운영개선 방안 연구*

조규필

김기현

김수진[†] 윤제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내일이룸학교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재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 확대, 수료율 및 취업률 제고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내일이룸학교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관련 선행 연구들을 수집·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전국 내일이룸학교 9개교 훈련생 85명, 졸업생 12명, 중도탈락생 8명, 종사자 16명을 심층면접하여 현재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분석하였다. 셋째, 미국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소재 Job Corps 센터를 현장방문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넷째, 내일이룸학교를 포함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미인가 대안학교, 보호처분시설 등을 이용 중인 학교 밖 청소년 7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학계, 현장, 정부 전문가 및 청소년 자문단을 구성,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내일이룸학교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요어 :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내일이룸학교, 취업사관학교

* 이 논문은 여성가족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실시한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7)'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수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Tel: 051-662-3183, E-mail: sujinkim1224@daum.net

서론

35만여 명으로 추산되는(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저학력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거나 취업이 되더라도 학력별 임금격차에 따른 근로빈곤층(work poor)이 되기 쉽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들(2015년 5월, 8월, 2016년 6월)이 마련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해 법률(제 15조 3항)이 개정되었으며(2017년 3월), 동법 시행규칙(제 5조 3항) 개정(2017년 10월)을 통해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200여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설치·지정되어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 변화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이 두 배 이상 늘어 2018년 1월 현재 137개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문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하는 내일이룸학교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관 받아 9개교로 확대·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해있는 근로 환경은 그리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당수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능, 자격, 태도, 동기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보장받지 못하는 저임금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의 불안전 고용상태에 처하든가 실업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박가열, 김병숙, 김시업, 임영식, 김은영, 정미나, 김수정, 장여경, 정경은, 2007), 근로현장에서 상당한 불이익과 근로권 침해를 겪기도 한다. 여성가족부(2015)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향후 진로계획으로 취업이나 창업,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고 싶다는 비율이 24.8%였고, 실제로 절반이 넘는 55.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65.2%),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는 경우(20.1%), 야간이나 휴일에 근무하고 초과수당을 받지 못 하는 경우(20.0%)도 많았다. 아르바이트 업종도 대부분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단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근로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다수(64.3%)의 학교 밖 청소년이 직업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직업체험을 해 본 청소년은 1/3에 불과하고, 실제로 직업기술을 배워본 적이 있는 청소년은 25.1%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하고자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이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이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 확대와 취업을 제고를 위해 2012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운영실태 파악 및 발전방

안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연구결과,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인성교육, 자기존중감, 대인관계 향상, 구직동기 제고 및 직업관 형성 프로그램, 학력보완 지원, 상담지원, 수료시 혜택 강화, 학교생활 복지 지원 등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운영개선 측면에서 교사 처우 개선, 다년계약의 실시, 취업이나 자립에 필요한 직종교육 개발, 예비학교 운영, 체계적인 사후관리, 학교운영 컨설팅 실시, 성과지표 개발 등의 제안이 있었다(이영민, 박가열, 손기영, 이영현, 임정연, 이수진, 2012; 이상봉, 2015). 이 가운데 일부 제안들은 내일이룸학교 운영체계에 반영되었으나 나머지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2015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등 정책 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고, 내일이룸학교도 고용노동부에서 2011년에 3곳으로 시작해 2017년 9곳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 기준 905명이 내일이룸학교를 거쳐갔고, 218명이 재학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 모집률과 수료율, 취업률은 그다지 호전되지 않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내일이룸학교의 소관부처가 고용노동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종합적인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개선 제안들 가운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법적·정책적 환경 변화 속에서도 유효한지 재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청소년 및 실무자 대상의 실증조사 등을 통해 내일이룸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내일이룸학교의 모집체계 및 교육훈련 운영방식, 훈련생의 생활관리, 취업연계 및 사후적응 관리, 지역협력 네트워크 관리, 실무자의 역할, 중앙지원기관의 역할, 인센티브 개발, 평가지표 등 내일이룸학교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국내외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지원정책들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지속적으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내일이룸학교의 운영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내일이룸학교 운영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종사자 및 교육훈련생, 졸업생, 중도탈락생과의 심층면접, 그리고 외부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의 니즈가 충분히 반영된 개선 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내일이룸학교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참여한 청소년의 직업역량을 강화하여 활발한 고용시장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일이룸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진단한다.

둘째, 내일이룸학교 운영체계 전반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론적 배경

1.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공공영역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취업성공패키지(I 유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법무부의 사회정착지원센터(Youth Education Center : YES) 등이 운영되고 있다. 민간에서는 외식, 베이커리, 커피 분야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CJ꿈키움 요리아카데미, 파티쉐 등의 8개 직업체험 과정과 소물리에 등 8개 일터학교를 운영하는 언더스탠드 예비뉴, 그리고 프렌치, 이태리, 한식 등의 조리학과와 서비스학과를 운영하는 SK 행복나눔재단의 뉴스쿨 등이 있다.

국외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 해외의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특히 내일이룸학교는 지난 수년간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료율, 취업률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효과적인 모집전략과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운영체계, 인센티브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해외 4개국의 모범사례에서 내일이룸학교의 운영형태와 유사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잡콥스센터(Job Corps Center), 독일의 청소년을 강하게!(JUGEND STÄRKEN!), 일본의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地域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 영국의 프로젝트관리 훈련(Project Management Training)을 비교분석하여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해외 관련 프로그램 비교

구분	미국. 잡콥스 (Job Corps)	독일. 청소년을 강하게! (JUGEND STÄRKEN!)	일본.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영국 PM 트레이닝
대상 연령	· 16세 ~ 24세	· 12세 ~ 26세	· 15세 ~ 39세	· 14 ~ 19세
지원 대상 기준	· 저소득층 한정 · 학교 밖 청소년 · 취업이 어려운 젊은이	· 학교 밖 청소년 · 취업이 어려운 젊은이 · 이민자	· 학교 및 직장 밖 젊은이 (NEET)	· 중등교육과정 중도탈락 청소년 · 대학 미진학 청소년
지원 규모	· 연간 6만여 명	· 연간 10만여 명	· 연간 2만여 명	· 연간 2,500여 명
모집 및 홍보	· 취업알선회사 연계 · 지역 및 학교 행사 홍보 · TV 및 라디오 광고	· 지역주민 홍보 · 온라인 모집 및 홍보	· 고용센터 연계 · 지역주민 홍보 · 직접 찾아가 발굴	· 온라인 모집 및 홍보 · SNS 활용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름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운영개선 방안 연구

구분	미국. 잡콥스 (Job Corps)	독일. 청소년을 강하게! (JUGEND STÄRKEN!)	일본.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영국 PM 트레이닝
프로 그램 단계	· 1단계: 사전 단계 · 2단계: 예비과정(4주) · 3단계: 직업훈련(3개월) · 4단계: 구직활동/취업	· 4개 지원서비스별로 구분 ① 상담 및 사례관리 ② 취업지원(직업체험/훈련) ③ 학교복귀 ④ 이민자 지원	· 3개 지원서비스별로 구분 ① 상담지원 ② 정착지원 ③ 집중프로그램(최장 6개월): 기초 소양교육, 직장체험, 실습(OJT), 자격 취득 강좌	· 1단계: 도입 프로그램(3~4주) · 2단계: 학습프로그램 (6-12개월) · 3단계: 도제제도(1년-4년) · 4단계: 취업
주요 프로 그램	· 직업훈련체계: 잡콥스에서 건설, 자동차 및 장비 등 100여 종 직업훈련 제공 · 일부 고급과정 운영 · 학생의 필요에 따라 검정고시나 운전면허 취득 등 확장 프로그램 제공	· 연계시스템: 지역의 고용 기관과 기업, 학교의 연계 시스템 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자기개발(학교,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고용기관, 직업센터, 기업) 제공 및 취업 지원	· 집중프로그램: 합숙 가능, 수강생 1인당 10만 엔까지 지원 · 협동심, 의사소통능력을 키우는 집중훈련에서 출발해 직장체험, 직장실습(OJT포함), 자격취득 강좌 수강, 취직 활동에 필요한 기초지식 강습 등 지원.	· 홈 워크(Housework): 지자체 소유 2만여 공공주택 관리업무 계약을 통해 매출 · 도제생에게는 건축분야 업무의 현장훈련을, 수습훈련생에게는 직무탐색을 제공 · 숙련시 외부기업 취업, 비숙련시 자체 도제훈련 고용
기관 운영	· 매주 모집/ 연4회 입학 · 과정당 15명 정원 운영 · 상반기/하반기 졸업	· 센터에서 상시 모집 · 세부 프로그램별 연중운영	· 센터 상시 모집 및 발굴 · 집중프로그램 연중 운영	· 센터에서 상시 모집 · 세부 프로그램별 연중 운영
운영 체계	· 6개 지역 사무처 총괄 · 지역 125개 센터	· 지역 800개 젊은이청	· 자립지원중앙센터 총괄 · 지역 160개 센터 운영	· 17개 PM 트레이닝(사회적기업) · 800여 개 기업 연계
상담	· 사전단계에서 진행	· 상담 및 사례관리	· 상담 및 사례관리	· 상담 및 사례관리
지 원 서 비 스	· 100개 유관 사업체 연계 · 3단계 대학 진학 포함 · 기숙사 무료 지원 · 식비 제공(주별로 다름)	· 1,600개 체험/훈련프로그램 · 학교복귀 프로그램 · 주거지원 없음	· 기초, 실습, 체험, 훈련 · 집중프로그램 숙소무료 지원 · 취직자 정착 상시 상담	· 30개 도제 직무 · 6-12개월 학습프로그램 · 주거지원 없음 · 취직자 대상 멘토링 제공
수당 지급	· 8주 훈련수당(25달러) · 9-16주 훈련수당(30달러) · 17-26주 훈련수당(40달러) · 27주부터 훈련수당(50달러)	· 수당 지급 없음	· 수당 지급 없음	· 훈련생 출석수당 지급 · 도제 최저임금(2.68파운드) 지급
인센 티브	· 진학/취업 인센티브	· 별도 인센티브 없음	· 별도 인센티브 없음	· 무료 아침식사, 교통비, 공구세트, 의상, 운전 강습

주. 잡콥스 : 이상봉(2015) / 청소년을 강하게 : 김기현 외(2017: 178) /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 진미석 외(2012: 308-309) / PM 트레이닝 : 박창남(2015) 각각 참조

우선 각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잡콥스센터는 미국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비영리기관 외에 대부분 영리기업에 민간위탁으로 전국에 125개 센터가 운영중인데 매년 16~24세 학교 밖 청소년 6만 여 명에게 직업훈련과 학업능력 및 사회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숙박형태로 지원한다(이상봉, 2015). PM 트레이닝은 영국의 스토크온트렌트(Stoke-on-Trent)시에서 민간회사인 어스파이어 그룹(Aspire Group)의 리어라이즈 재단(Realise Foundation)에 위탁하여 800여 개 기업들과 연계하여 매년 2,500명의 16~19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제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다. 특히 지자체 소유 2만여 공공주택 관리업무 계약을 하여 '홈워크(Homework)'라는 팀단위에서 매출을 올리며 건축분야 업무의 현장훈련 및 직무탐색을 통해 자체 도제훈련이나 외부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박창남, 2015). '청소년을 강하게(JUGEND STÄRKEN!)' 프로젝트는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젊은이부(BMFSFJ)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12~26세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 상담, 취업지원, 학교복귀, 이민자 복귀 등 4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6,000명 가량이 1,60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10%가 취업하고 있다(김기현, 하형석, 신인철, 2016: 178). 지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Support Station)의 경우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 전국 160개의 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니트(NEET)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사회적성 증진, 직장체험 및 실습, 자격 취득 강좌 등의 서비스를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하고 있다(진미석, 손유미, 김도협, 2012: 308-309).

특별히 이 프로그램들에서 주목할 점은 훈련생을 연중 상시모집하고 있다는 점과 운영기관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 교육과정에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체험과 실습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내일이룸학교의 경우 훈련생 모집이 연간 1회에 그치고 있어 훈련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위의 프로그램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에 맞춰 연중 상시 훈련생 모집체계를 갖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은 속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일이룸학교가 이제 10개소 내외로 운영되고 있어 입교 희망 청소년이 전국 각처에서 지원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시한 프로그램들과 같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확대 설치가 요구된다. 내일이룸학교의 직업훈련 이수율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과 연계 강화가 필수라고 보여진다. 해외 프로그램들은 우선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체험과 실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내일이룸학교 운영실태 분석

내일이룸학교 운영실태 자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하여 수집하였으며, 운영실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지난 2011년에 3개소로 시작된 이후 2016년까지 총 905명이 훈련에 참여하였고(모집률 101.7%), 67.6%인 612명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참여인원의 32.4%에 해당하는 268명이 중도에 탈락하였다. 수료생의 72.9%인 446명이 수료 후 취업을 하였다. 훈련과정은 학교별 1종씩으로 총 31개 과정이 운영되었으며, 훈련기간은 평균 9.5개월이었다.

<표 2>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및 훈련실적('11~'16년)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훈련기관 수		3	4	5	5	6	8	31	
훈련과정 현황	훈련과정 수	3	4	5	5	6	8	31	
	평균훈련기간(개월)	10	10	9	10	9	9	9.5(평균)	
훈련생 현황	배정인원(A)	100	130	150	150	150	210	890	
	모집인원(B)	111	127	152	148	155	212	905	
	수료인원(C)	69	96	106	105	112	124	612	
	계(D)	42	31	46	43	43	88	293	
	중도 탈락	순중도탈락인원(E)	42	29	42	41	39	75	268
	조기취업인원(F)	0	2	4	2	4	13	25	
	수료 후 취업인원(G)	57	74	75	80	83	77	446	
훈련 실적	모집률(B/A)	111.0%	97.7%	101.3%	98.7%	103.3%	101.0%	101.7%	
	중도탈락률(D/B)	37.8%	24.4%	30.3%	29.1%	27.7%	41.5%	32.4%	
	수료율(C/B)	62.2%	75.6%	69.7%	70.9%	72.3%	58.5%	67.6%	
수료 후 취업률(G/C)		82.6%	77.1%	70.8%	76.2%	74.1%	62.1%	72.9%	

이러한 훈련실적 상의 분석 수치들을 고려할 때 몇 가지 개선이 요구된다. 모집률은 겨우 정원을 채우는 수준으로 예비학교 운영을 통해 준비가 안 된 가입교생을 걸러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중도탈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평균 1/3정도의 훈련생이 중도탈락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취업률은 수료생의 70%를 상회하고 있어 낮다고 볼 수 없지만 모집인원의 절반가량이 취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고비용이 필요한 내일이룸학교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내일이룸학교가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2017년 운영현황을 보면, 총 9개 내일이룸학교가 7개 시도에서 운영되었다. 훈련과정은 기계가공조립, 특수용접, 간호조무사, 컴퓨터응용 기계설계, 제과제빵 분야 각 1종, 헤어미용 분야 4종이며, 이 가운데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8개소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 비중이 평균 77.1%이다. 전체 교육과정은 사전에 2~4주간 운영되는 예비학교(7.2% 비중)를 포함하여 직업훈련(73.4%), 인성교육(7.1%), 교양교육(4.5%), 특화프로그램(7.7%)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내일이룸학교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는 두 차례에 걸쳐 이영민 등(2012)과 이상봉(2015)이 실시한 바 있는데 개선 제안사항의 반영여부는 다음의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이영민 등(2012)의 연구에서는 2011년 운영 3개교를 중심으로 졸업생 38명과 취업처 관계자 18명 대상 설문조사와 졸업생(5명), 중도탈락생(2명), 실무자(6명), 취업처 담당자(3명) 16명 대상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 기관 수의 확대, 4가지 운영형태(기숙형, 출퇴근·기숙 혼합형, 상담기관 혼합형, 대안학교 혼합형), 단년계약에서 최대 3년 다년계약, 회계처리 지침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운영 단계에서는 교육생 모집과 선발을 위한 홍보 확대 및 선발기준 마련, 예비학교 운영, 교육지원 확대, 전문상담 서비스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사후관리비 지원과 운영기관 협의체 구성, 단기 컨설팅 실시, 성과목표 및 지표의 다양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봉(2015)의 연구에서는 2015년 운영 6개교를 중심으로 훈련생 3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업훈련과정과 생활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새로운 제안들로는 청년인턴제 이상의 지원 및 취업성공패키지 제도와 연계, 고용유지금, 취업수당 등의 지원을 통한 보상 강화, 상급학교 진학 등에 대한 성과 인정, 취업에 필요한 기본 인성교육 및 사회적응교육 등 강화, 훈련수당의 기간별 차등 지급, 취업률이 높은 훈련직종 개설 등을 제안하였다.

<표 3> 기존 연구 제안 개선방안의 2017년 반영 여부

구분	운영 개선 방안	선행연구		반영 여부	비고
		2012	2015		
운영체계	사업기관 수 확대 (권역별, 지자체별)	○		△	- 11년 보다 6개교 확대 - 광역자치단체별 확대는 미반영
	운영형태 다양화	○		△	- 출퇴근·기숙 혼합형은 반영, 상담기관 혼합형과 대안학교 혼합형은 미반영
	실적우수학교 다년 계약	○	○	○	
대상자 모집	부처 간 협력	○	○	○	
	유인물 제작·배포	○	○	○	
	매스컴 홍보		○	○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	○	
	선발 기준 마련	○		△	- 각 학교별 자체적 선발 중이며 객관적 검사 도구 미개발
	선발 인원 제한	○		○	
예비학교	2~4주의 예비학교	○	○	○	
생활관리	기숙사 마련 및 선택적 운영	○		△	- 9개교 중 7개교만 기숙사 마련
	편안한 생활지원		○	△	- 충분한 편의시설 제공 미흡
상담	상담 지원 강화	○		△	- 일부 학교만 전문인력 배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내일이름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운영개선 방안 연구

구분	운영 개선 방안	선행연구 반영			비고
		2012	2015	여부	
직업훈련	직종 신규 발굴	○	○	△	- 제안 직종 중 건강, 요리 직종은 신설 - 공업, 정보통신, 건설 직종은 미반영
	인성 교육		○	○	
인성·교양 ·특화 프로그램	사회 적응 교육		○	△	- 학교별 상이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 나 전문적으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 는 한계
	컴퓨터 활용 능력 교육		○	△	
	사무처리 능력 교육		○	△	
	직업훈련기관 이상의 교육		○	△	
학업지원	검정고시 등 지원	○	○	△	- 학업이 훈련시수로 미인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		○	
	폴리텍, 대한상공회의소 시설 활용	○		×	
	상급학교 진학의 성과 인정		○	×	
지역협력	운영기관 협의체 운영	○		△	- 일부 학교는 유관기관과 활발히 연계.
네트워크	연계시스템 구축	○		△	- 일부 학교는 미연계
사후적응 지원	수료생 사후관리		○	△	- 예산에는 사후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 나 지속적 관리 미실시
	사후관리비 지원(예산에 반영)	○		○	
인센티브	청년인턴제 이상의 지원		○	×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	○	○	×	
	고용 유지금, 취업수당		○	×	
	훈련기간별 훈련수당 차등 지급		○	×	
성과지표 개선	성과목표 및 지표	○		×	
	계획대비 성과평가	○		×	
중앙지원 기관의 역할	회계처리 지침 마련	○		○	
	단기 컨설팅 실시	○		○	

반영 여부 : ○(반영), △(일부 반영), ×(미반영)

2017년 내일이름학교 운영실태를 보면 위의 제안들이 일부 반영되어 어느 정도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학업지원 성과 인정, 노동부의 고용지원 인센티브 연계, 성과지표의 다양화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사업기관 확대 및 운영형태의 다양화, 구체적인 훈련생 선발기준 마련, 생활편의시설 제공, 학업지원의 훈련시수 인정 등의 제안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직 훈련생 모집률, 교육훈련 이수율, 취업률 등의 주요 성과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내일이름학교 사업이 이관되면서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200여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가 중요시 되었고, 다문화 및 미혼모, 가출청소년 등의 특화시설에 대한 개입도 여성가족부 정책의 주요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어 사업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선행연구의 제안들 가운데 반영된 요소들이 얼마나 실

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미반영된 제안들은 변화된 정책환경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적용하면 좋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일이룸학교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방 법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내일이룸학교 종사자 및 훈련생, 일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질적·양적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내일이룸학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자문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한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추진절차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현장연구	심층면접 (2017.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85명: 남44, 여41) · 내일이룸학교 졸업생 (12명: 남9, 여3) · 내일이룸학교 중도탈락생 (8명: 남4, 여4) · 내일이룸학교 종사자 (9개교, 16명: 남6, 여10) · 미국 잡콕스 센터 종사자 (2개소, 4명: 남3, 여1)
	설문조사 (2017.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이룸학교 이용경험 및 개선요구도 설문지 2종 개발 (훈련생용, 학교 밖 청소년용) ·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설문조사 (709명: 남 321, 여 377, 무응답 11) - 내일이룸학교 15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42, 청소년쉼터 89, 미인가대안학교 68, 보호처분시설 51, 무응답 5
자료 분석	질적 자료 분석 (2017. 9)	· 내용 분석 : 축어록 전사, 개방코딩, 개념 명명화 등
	양적 자료 분석 (2017. 9)	· 빈도분석 (분석도구 : SPSS 18.0)
평가/제안	개선방안 제안(기초) (201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및 현장연구 자료 분석 결과 적용 · 연구진 자체 개선방향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및 고객자문 (2017.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계, 현장, 정부 등 외부 자문단 구성 및 자문 · 개선방안 기초안에 대해 청소년 의견 청취 · 연구진의 종합 검토
	개선방안 보완(최종) (2017.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검토 결과 적용 · 최종 내일이룸학교 운영 개선방안 제안

[그림 1] 연구절차

1. 연구대상

1) 심층면접 대상

심층면접은 2016년 7~8월 사이 학교 밖 청소년과 국내외 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청소년 선정시 고려한 점은 내일이룸학교 졸업생 및 중도탈락생의 경우 섭외 가능한 전수를 조사하고자 하였는데, 그 이유는 훈련 지속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또한 훈련생의 경우 기관 특성별 상이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기관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운영 중인 전체 내일이룸학교 재학생 가운데 명확한 의견 제시가 가능한 청소년의 성별을 고려하여 기관별 10명씩 전체 105명을 선정하였다. 심층면접 방법은 훈련생의 경우 연구자 1명이 청소년 4~6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접을 실시하였고, 졸업생과 중도탈락생은 대면 또는 전화를 통해 개별면접을 실시하였다.

실무자 심층면접 대상은 전체 내일이룸학교 9개소에서 기관운영 측면과 프로그램 측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실무자를 기관당 1~2명씩 16명(남6명, 여10명)을 선정하였으며, 평균연령은 만45세, 경력은 7개월에서 20년까지 다양했으며, 주로 관리 및 행정, 교육훈련, 상담 업무를 맡고 있었다. 국외 조사의 경우, 운영체계상 내일이룸학교에 벤치마킹하기 적합하며, 운영성과가 검증된 기관 가운데 연구일정 내에 조사협조가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였는데, 섭외결과 미국의 잡콥스센터(Job Corps Center) 2개소에 근무하는 실무자 4명(남3명, 여1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방법은 2017년 7~8월 사이 이메일을 통해 사전 인터뷰 질문내용을 전달한 후, 연구진이 현지 통역자 1명과 함께 미국의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잡콥스센터 2개소를 각각 방문하여 센터장 및 실무자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시설 라운딩 및 훈련생 미팅을 통해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

2) 설문조사 대상

설문조사는 2017년 7~8월 사이 전체 내일이룸학교 훈련생과 예비 고객집단에 해당하는 비훈련생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세부 인구사회적 특성을 다음의 표 4와 같다. 비훈련생의 경우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015) 대상 기관 중 접근이 용이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미인가 대안학교 등의 기관에 속한 학교 밖 청소년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섭외결과 조사에 응한 청소년은 9개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154명과 180여개 청소년기관에 속한 비훈련생 555명으로 전체 709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조사방법은 해당 기관에 사전 협조요청 후 연구진이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수합하였다.

<표 4>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

영역	구분	N	%	구분	N	%	구분	N	%	
지역	서울	136	19.18	울산	12	1.69	전남	42	5.92	
	부산	67	9.45	경기	68	9.59	경북	26	3.67	
	대구	28	3.95	강원	24	3.39	경남	50	7.05	
	인천	34	4.80	충북	19	2.68	제주	11	1.55	
	광주	13	1.83	충남	70	9.87	세종	1	0.14	
	대전	35	4.94	전북	54	7.62	무응답	19	2.68	
성별	남	321	45.28	여	377	53.17	무응답	11	1.55	
소속	내일이룸학교	154	21.72	경제적 수준	하	148	20.87	일반 가정	593	83.64
	꿈드림	342	48.24		중하	176	24.82	북한이탈 가정	3	0.42
	쉽터	89	12.55		중	299	42.17	다문화 가정	42	5.92
	미인가대안학교	68	9.59		중상	58	8.18	중도입국 가정	11	1.55
	보호처분시설	51	7.19		상	10	1.41	기타	45	6.35
	무응답	5	0.71		무응답	18	2.54	무응답	15	2.12
	연령대	만9세~12세	2		0.28	사회보장 형태	기초생활수급 가정		118	16.64
만13세~15세		35	4.94	차상위 가정			43	6.06		
만16세~18세		474	66.85	일반 가정			310	43.72		
만19세 이상		185	26.09	모르겠음			213	30.04		
무응답		13	1.83	무응답			25	3.53		
계						709명		100%		

2. 연구도구

1) 심층면접 질문지

면접 질문지는 4종으로 청소년용 3종(훈련생, 졸업생, 중도탈락생), 실무자용 1종을 제작하였다. 훈련생용은 8개 영역(모집·선발, 중도탈락, 직업훈련, 학업지원, 직업훈련·학업지원 외의 나머지 교육 프로그램, 생활관리, 취업, 인센티브)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훈련 참여 계기, 직종 선택 이유, 중도탈락 위기, 예비학교의 도움 정도, 훈련 보완 요구사항, 학업지원 현황, 교우관계, 생활규칙의 영향, 상담 유무, 장려금 사용처 등이었다. 졸업생용은 위 질문 외에 취업 후 생활이나 취업처 적응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사후적응 영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으며, 중도탈락생용은 중도탈락 사유와 중단 후 생활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일부 내용은 제외하여 구성하였다. 질문지 구성시 외부전문가 2명에게 질문의 명료성, 정확성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여 면접용 질문지를 최종 확정하였다. 실무자용 질문지는 11개 영역(사

업 공모, 모집·선발, 중도탈락, 직업훈련, 학업지원, 생활관리, 사후적응, 취업, 인센티브(혜택), 운영체계 개선 발전방안, 인력 관리)에 대해 오픈형으로 구성하였다.

2) 양적조사 설문지

설문지는 청소년들의 내일이룸학교 개선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해 훈련생용과 비훈련생용 2종을 개발하였다. 훈련생용의 조사내용은 학업중단 관련 일반사항, 학교를 그만둔 이후 생활실태, 내일이룸학교 관련 일반사항, 직업훈련, 예비학교, 학력취득, 상담, 특화프로그램, 생활관리, 혜택제공, 사후적응서비스, 내일이룸학교에 대한 기대 및 참여의사, 중도탈락, 향후 진로, 일반적 특성의 15개 영역, 1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비훈련생용은 교육훈련 참여경험과 중도탈락 등 내일이룸학교 입교 경험에 해당되는 문항을 제외하고 총 7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도구의 신뢰도는 5점 척도로 평정 가능한 문항에 한해 측정된 결과, 주요 프로그램 필요도의 경우, 직업훈련 필요도 .91(하위영역 : 이론교육 .81, 현장실습 .90)이었으며, 예비학교 세부프로그램 필요도 .74, 특화프로그램 필요도는 .94(하위영역 : 인성교육 .88, 교양교육 .84, 기타 프로그램 .94)이었다. 나머지는 실태파악을 위한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신뢰도 검증이 불필요한 문항들이다.

3. 분석방법 및 절차

심층면접 자료는 105명의 청소년들과 20명의 국내외 실무자들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질적연구 분석방법(김영천, 2012; 박성희, 2004)에 따라 방대한 양의 축어록과 현장에서 기록된 메모를 개방코딩 및 범주화, 개념 명명화 작업을 통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연구진 회의를 통해 면접반응이 상이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자료는 일반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배제하였다. 같은 면접반응인 경우에는 귀납과 연역의 과정을 오가며 범주의 생성과 정의를 반복하였다. 총 두 차례의 내용분석 회의를 통해 분석결과를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는 빈도분석과 중복응답을 허용하고 있는 문항들에 대한 다중응답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분석도구로는 SPSS 18.0을 사용하였다.

결 과

1. 현장연구 분석결과

1) 청소년 심층면접

청소년 심층면접 분석결과, 모집·선발과정 및 중도탈락 원인 중심으로 확인되었으며, 개선

해야할 영역은 예비학교, 직업훈련, 학업지원, 생활관리, 인성·교양·특화 프로그램, 취업지원, 사후적응, 인센티브 등 모두 10개 영역에서 58가지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세부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였으며, 핵심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집 확대를 위해 홍보 확대가 필요하며, 홍보 시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어야 하고, 특히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모집기간은 1달 이상으로 확대하여 입교 신청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4주의 예비학교 기간을 2주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직업훈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간을 늘리고, 훈련의 질을 높이고 훈련생의 동기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훈련기간은 줄여야 한다는 상반된 의견도 있었다. 넷째, 학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고 일대일로 학습멘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째, 열악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보건실이나 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적응 초기에 희망자에 한해서는 심리상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여섯째, 인성교육 등의 특화 프로그램은 희망자에 한해 참여하도록 하거나 프로그램 기획시 사전에 훈련생의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일곱째, 훈련과정 중 취업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 준비를 돕고, 현장 체험 비중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여덟째, 현장실습 비중을 높여 현장의 감을 미리 익힐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아홉째, 자립장려금을 최소 4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지급 시기를 고정하여 특정일에 지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2) 실무자 심층면접

국내 실무자 심층면접 분석결과 운영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심으로 의견이 도출되었다. 분석내용은 사업공모 과정의 개선, 운영기관 모집시기의 조정, 예산배분 방식 변경, 모집선발 기간 확대, 중도탈락율 개선, 직업훈련, 직업지원, 생활관리, 사후관리, 취업률 제고, 인센티브, 인력관리 등 13개 영역에서 55가지의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세부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였으며, 핵심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공모시 정확한 예산편성 지침 등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운영매뉴얼도 공모 때 시달되어야 하며, NCS과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운영기관 모집 시기는 9~11월 중에 진행되어야 하며 아무리 늦어도 11월 말에는 선정이 완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예산배분 방식은 대다수가 현재 PF(Project Financing) 방식에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희망했다. 셋째, 중앙차원에서 필기 면제, 자립장려금 지급 등 내일이룸학교의 주요 장점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넷째, 중도탈락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비학교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훈련생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숙형 4주, 통근형 2주로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다섯째, 일부 훈련과정에서는 현행 70%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NCS 과정이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오히려 걸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완화하여 훈련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여섯째, 현장 실습, 취업준비,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포함한 취업적응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일곱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충분한 취업처 POOL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덟째, 예산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장려금을 출결 일수에 따라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아홉째, 1년에 1회 이상 사례관리, 동기부여, 소진방지 등의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고, 인력 선발 시 자격 요건 개선과 관리교사, 보조교사, 훈련강사 등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열째, 운영매뉴얼을 보완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산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해외 실무자 심층면접

미국 잡콥스센터 2곳(워싱턴, 필라델피아)의 현장방문을 통해 실시한 실무자 심층면접 분석 결과 운영측면과 프로그램측면 모두에서 효과적인 개선방안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세부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였으며, 핵심 분석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생 모집·선발을 개선하기 위해 훈련생 모집 횟수를 늘리고 홍보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 잡콥스센터에서는 훈련생을 연중 상시적으로 모집하며 한 과정에 일정 인원 이상이 채워지면 분기별 훈련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계된 취업처에 실무자가 함께 방문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직업훈련 직종을 다양화하고 숙련도별 분반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융통성 있는 과정 운영이 요구된다. 셋째, 훈련생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상담사는 훈련생과 일대일 관계를 형성하고 수시로 훈련생의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검정고시 지원 및 언어교육 등 훈련생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잡콥스센터에서는 졸업생의 90~95%가 고졸 학력을 취득하여 졸업한다. 다섯째, 생활관리 차원에서 규칙 준수 및 위반 여부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와 제재를 하고 있다. 여섯째, 취업 지원시 지역사회 내 취업처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예컨대, 지하철공사인 Metro Track, 기업형 약국인 CVS, 월그린과 연계되어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훈련과정에 반영하여 교육과 현장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취업가능성을 높인다. 일곱째, 청소년의 성과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취업 외에도 상급 훈련과정 입학, 대학 진학, 심지어 군대 입대까지 성과로 인정하고 있다. 여덟째, 실무인력 투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 잡콥스센터는 훈련생 350명 규모에 150명 정도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 대비 실무자가 2:1의 비율로 투입되는 만큼 내일이룸학교의 운영인력도 증원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과가 좋은 운영기관은 전체 예산의 6~8% 이윤에 추가적으로 3%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다.

4) 청소년 설문조사

양적조사 분석결과 운영측면과 프로그램측면에 대해 내일이름학교 훈련생의 선호경향과 비훈련생 학교 밖 청소년의 기대요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내용은 내일이름학교 인지경로, 입교결정 이유, 직업훈련, 예비학교, 학력취득, 상담, 특화 프로그램, 생활관리, 지원희망 혜택, 사후적용 서비스, 내일이름학교에 대한 기대 및 입교의사, 중도탈락, 향후 진로 등 14개 영역에 대한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세부 문제점 진단 및 개선안은 다음 장에서 제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제시된 주요 개선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일이름학교 입교정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비훈련생 다수가 입교의사가 없는 것은 내일이름학교를 잘 모르고(68.30%), 내일이름학교에 대해서 모르기(27.51%) 때문이라고 답했다. 둘째, 내일이름학교의 장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입교결정 이유에 대해 훈련생은 기술을 배울 수 있어서(32.53%), 비훈련생은 기술습득(자격증 취득 포함)이 가능하고(24.92%), 취업할 수 있고(19.29%), 자립장려금(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셋째, 청소년의 희망에 따라 적당한 훈련기간 설정이 요구된다. 비훈련생은 적당한 훈련기간으로 6개월(48.29%)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제일 많았으며, 1년(31.35%)이 뒤를 이었다. 현재 내일이름학교는 10개월 내외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넷째, 직업훈련시 실습이나 체험 형태의 교육방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훈련생은 이론교육과 교내실습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비훈련생은 취업캠프나 직업현장 체험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섯째,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훈련 직종 개발이 요구된다. 청소년들은 바리스타(11.43%)와 조리(9.69%), 제과제빵(9.05%) 같은 조리 계열의 직종을 선호했지만, 현재 제과제빵 과정만 개설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피부미용/체형관리, 헤어, 네일아트, 경호, 광고디자인, 간호조무, 여행가이드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이 가운데 피부미용/체형관리, 헤어, 간호조무만이 개설되어 있었다. 여섯째, 학력취득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비훈련생의 절반 이상이 학력취득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은 상급학교 진학의사가 있는 경우(261명)가 없는 경우(71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일곱째, 상담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훈련생은 상담서비스에 대한 도움을 높게 평가했고, 상담 기회가 늘기를 희망했다. 여덟째, 생활규칙을 정하거나 생활편의 제공시 훈련생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모든 기관의 훈련생들은 기숙형인 경우 평일에도 외출이 자유로웠으면 좋겠다(총 152명)고 답했고, 출퇴근형의 경우, 교통비 지원(총 245명)이 있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아홉째, 청소년의 요구도 조사를 통해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 훈련생은 금연·금주 교육, 폭력예방 교육, 성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으나 비훈련생은 직장적용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열째, 다수가 금전적 성격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입교 혜택으로 비훈련생은 장학금을 가장 원했지만 훈련생은 자립장려금을 더 많이 받고 있었다.

2. 문제진단

이상의 조사결과들을 토대로 1차 분석한 양적·질적 자료들은 마인드맵핑 프로그램 (Thinkwise 2008pro)을 활용해 6개 영역의 운영측면과 8개 영역의 프로그램측면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개선의견들을 도출하였다. 이 가운데 연구진이 수차례의 검토 작업을 통해 다음의 요건, 즉 수집된 현장 의견들 가운데 내일이룸학교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현실성이 희박한 의견을 제외하고,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점을 2차로 선별하여 다음의 표 5에 제시하였다. 아울러 내일이룸학교 운영상의 긍정적인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발전적 차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범위로 한정하였다.

문제점 진단은 운영측면 6개 영역과 프로그램측면 8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운영측면에서는 운영체계, 대상자 모집, 인센티브, 성과평가지표, 실무자의 주요업무, 중앙지원기관의 역할로 나누어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프로그램측면에서는 중도탈락, 예비학교, 직업훈련, 특화프로그램, 학업지원, 상담지원, 생활관리, 사후적응으로 나누어 진단하였다.

<표 5> 문제점 진단 비교

구분	개신 분야	문헌조사	현장조사
운영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불안정(1년 단기계약) · 세부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 준 부재 · 실습부족, 집중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횟수 부족: 연 1회 · 훈련 직종의 선택 제한 · 1훈련직종에 한해 1회만 입학 가능 · 중도에 다른 직종으로 변경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F(Project Financing)예산방식 부적합 · 사업공모 시 정보제공 불충분 · 운영기관 모집·선정 시기 늦음 · 2년 이상의 장기계약이 안정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률 저조: 접근성 낮음 · 홍보 예산 부족 · 훈련생 세부선발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 낮음, 정보부족, 모집기간 짧음 · 과장 광고 불만 · 예) 100% 전액지원→재료비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시기(1월)가 현실과 맞지 않음: 실제 2~3월 모집이 많음. · 모집기간 짧으며 홍보 미흡
운영 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구직활동수당1), 청년내일채움공제2) 지원 제외 · 취업혜택 및 고용혜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장려금이 적으며 지급 불규칙 · 80% 미만 출석시 자립장려금 전액 미지급 · 시험 응시료, 주거비,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순서(비입교 청소년): 장학금, 자립장려금, 필기시험 면제, 포상금, 특별외출 순 · 인센티브 제공시 현금지원 불가 · 자립장려금 지급 시기가 일정치 않음 · 20% 이상 결석시 출석포기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률, 중도탈락률(수료율) 외 별도 성과목표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일이름학교의 정체성 재확립 요구 · 정체성에 따른 성과평가지표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교사 증원 필요(13.33%) · 통근형의 경우, 등·하교 지원 등 생활관리 전담교사 필요(15.19%)
중양지원 기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고용불안정 · 업무매뉴얼상 종사자 구성 및 역할에 대해 별도의 가이드라인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강사 부족: 훈련생 4~5인당 직업훈련 강사 1인 필요 · 직업상담사 등 섭외하여 전문적 취업지원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교사 증원 필요(13.33%) · 통근형의 경우, 등·하교 지원 등 생활관리 전담교사 필요(1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b Corps의 ETA3)와 같은 체계적인 중앙기능 미비 · 담당자 수시 교체 · 장기적 컨설팅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홍보 부족 · 자립장려금 수당 지급 지연 · 학교 연합 여행, 캠프 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교 의뢰기관이 특정 기관에 편중: 입교생이 14종의 기관 중 5종의 기관에 84.36% 집중, 나머지 기관에 대한 홍보전략 필요

* 주 1. 청년구직활동수당 : '17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에게 추가 지급(30만원×3개월)
 2.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취업시 2년간 1,600만 원의 자산형성 지원(노동부 900만원+중소기업 400만원+본인 300만원)
 3. ETA(Educational Training Administration) : 미국 노동부 산하의 Job Corps Center 중앙지원기관으로서 교육훈련, 시설자산관리, 정보망 관리(실적분석 등), 사업운영 지원, 프로그램 개발·모집, 정책 제안 및 사업 기획 등을 지원하고 있음(미국 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구분	현장조사		
	개선 분야	문헌조사	설문조사 (훈련생·비훈련생)
중도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발적 참여 · 운영목표에 맞지 않는 훈련생 · 입학 · 흥미·적성의 확인 과정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성 불일치 및 각종 부적합 · 엄격한 규칙(예: 휴대폰 통제 등) · 기숙사 단체생활 부담 · 중도탈락 동료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문제 및 이성친구 문제 · 각종 부적합 · 단체생활 어려움 · 필기시험 불합격 시 중단을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인원 부족으로 선별 효과 미흡 · 적정기간: 2주~4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학교기간중 수강, 교통비 지원이 없어 불만 · 분위기 흐리는 아이 퇴소 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기간: 3~4주(44.81%), 1~2주(42.86%) · 인원변동이 잦아 분위기 산만함
직업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과정 수료율 저조 · 저함 훈련과정 발굴 한계 · 훈련 직종이 1종뿐이라 선택의 여지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습득 정도가 제각각 차이가 큼 · 동기부족 훈련생이 분위기 산만 · 훈련강사 부족 · 기능대회 출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뿐인 훈련 직종 아쉬움 · 선호직종 개설 희망 · 훈련 시 어려움: 과정을 해낼 자신 없음, 적성에 맞지 않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 교양, 특화 프로그램의 중복 또는 과도한 운영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조절훈련, 직장적응, 대인관계 향상(인성교육)/ 돈 관리, 시간 관리, 비전 세우기(교양교육) 희망
학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중단 후 절반이상이 취업 지원 희망 · 별도 예산편성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고시, 일대일학습 지원 필요 · 대학교 입학 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간 수업 지원 미흡 · 상급학교 진학정보 따로 없음 · 직업훈련 외 교육은 힘이 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층이 섞여 있는 기숙사의 경우 갈등 경험 · 엄격한 생활 규칙이 중도탈락의 요인으로 지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시설열악, 식단부실, 체력단련 실·보건실 없음, 생활품 부족 · 기숙형: 알바 못함, 주말 프로그램 필요 · 통근형: 셔틀버스 운영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스마트폰 제한, 반복된 일과 · 기숙형: 외출·외박 부자유, 식단 부실 · 통근형: 기상·취침 등 시간 관리 어려움, 교통비 부담, 환경 유혹
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인력의 전문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불필요하다는 청소년과 도음이 된다는 청소년으로 나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이 도움이 되나 상담인력, 상담기회, 전문성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과의 연라 두절 · 사업 종료 후 비용 및 인력 한계로 지속 관리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절한 취업처 알선 · 훈련 직종의 취업처 열악 · 인턴 기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 서비스: 취업알선, 주거지원, 취업처 방문격려 및 관계자 면담, 심리·진로상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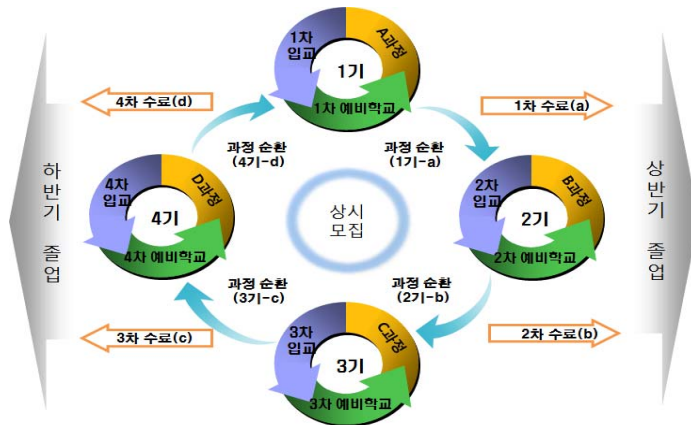
3. 운영 개선방안 도출

내일이룸학교 운영 개선방안은 앞서 진단한 각각의 문제점들과 매칭되는 14가지 영역의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운영측면 7가지는 운영체계, 대상자 모집, 협력 네트워크, 인센티브, 성과 지표 개선, 실무자의 주요업무. 중앙지원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였고, 프로그램 측면 7가지는 사전단계에서 예비학교 운영, 실행단계에서 직업훈련, 인성·교양·특화 프로그램, 학업지원, 생활관리, 상담, 사후단계에서 사후적응(취업 등) 지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내일이룸학교 운영 개선방안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진은 선행연구와 현장조사를 통한 복합적인 문제진단 결과 내일이룸학교 전반의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운영측면과 프로그램측면으로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연구진이 앞서 진단한 여러 문제점 항목들별로 마인드맵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일이 대조하며 선행연구와 현장의견들 가운데 개선안이 제시된 것은 현실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선별·반영하였다. 2차로 개선안이 없거나 개선안이 상충되는 문제항목에 대해서는 연구진이 수차례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구진이 마련한 기초 개선안에 대해 현장성, 타당성, 정책집행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외부 전문가 4명(학계, 현장, 사회적 기업, 정부 관계자)과 청소년 고객집단에 해당하는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5명을 선정하여 자문을 듣고 기초 개선안에 대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영역별 세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측면

① 운영체계 : 내일이룸학교 교육훈련방식 개선의 핵심은 다음의 그림 2와 같이 입교생 모집, 예비학교, 교육훈련, 수료 및 졸업 등의 운영체계를 분반제 및 순환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림 2] 순환식 교육훈련모형

교육훈련과정은 4종의 세부 훈련과정으로 분반하여(분반제) 입교 기수별 3개월씩 A→B→C→D과정을 순환하며(순환제)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각각의 세부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계속해서 다음 과정으로 순환하며 수강할 수 있다. 이때,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조기 수료할 수도 있다. 훈련생의 숙련도에 따라 훈련기간 중에 세부 훈련과정을 1종에서부터 4종까지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진도를 따라가지 못 할 경우 기존의 훈련과정에 잔류하여 다음 기수의 훈련생 그룹과 함께 잔여 과정을 재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진도 차이로 인한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② 대상자 모집 :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에 맞게 연중 수시로 입교신청을 받아 분기별 연 4회 입교생을 선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입교 기회를 늘려야 한다. 기존에는 입교생 모집이 연간 한번 이루어져 입교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학업중단 후 입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모집 방식이었다. 따라서 모집방법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내일이름학교 투어 프로그램을 정례적으로 제공하거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홍보, 중앙차원의 홍보 지원, 아웃리치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연중 상시 모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인센티브 : 내일이름학교 입교 지원자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이 요구된다. 정책적으로는 내일이름학교 졸업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수당,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소정의 직업훈련시간(1,400시간 중 70% 이수) 이수시 자격증 필기시험 면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금전적으로는 자립장려금, 통근형 훈련생에 대한 교통비, 식비, 주거비 지원, 성취수당 및 동기부여 수당 신설 등이 요구된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우수 훈련생 해외연수 포상, 여행 및 캠프 지원, 포상휴가 및 체험휴가 활용, 직업에 유용한 자격취득 지원(운전면허 등)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④ 성과평가지표 : 내일이름학교의 서비스 성과를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취업률, 수료율 또는 중도탈락률, 이용자 만족도 외에도 직업관련, 학업관련, 적응관련 단·중기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직업관련 정량지표 예시로는 취업(조기 취업 포함), 자격증 취득, 도제훈련 참여, 경진대회 입상, 창업, 협동조합 설립, 사회적기업 설립, 고용 지속도 등이 가능하며, 정성지표는 경력개발계획(CDP) 수립, 고용 안정성, 채용업체의 만족도, 진로개발역량(진로설계), 직업기술 향상도, 직장 만족도가 있다. 학업관련 정량지표는 검정고시 합격, 학력취득과 상급학교 진학, 정성지표는 학업성취도, 학습능력 향상도 등이 가능하다. 적응 관련 정량지표는 훈련생의 적응도, 사회적응력 향상도, 자립준비도 생활관리 역량,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수준 등이 가능할 것이다.

⑤ 실무자의 주요업무 : 운영관리 면에서는 총괄, 훈련생 모집 및 홍보, 기숙사 관리(기숙형), 보건, 영양 및 조리, 행정 및 회계 업무가 필요하다. 생활관리 및 사후적용 면에서는 상담, 생활관리, 사후적용 지원 업무가 요구된다. 교육훈련 면에서는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학업지원, 인성·교양·특화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

⑥ 중앙지원기관의 역할 : 내일이룸학교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국 노동부 산하의 잡콕스 지원기관인 ETA와 같이 중앙지원기관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내일이룸학교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운영매뉴얼 개발,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사업운영 컨설팅, 사업성과 관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훈련생 서비스 이력관리, 지역 네트워크 관리,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밖에 종사자 역량강화 및 고객지원 등의 역할이 요구된다.

⑦ 협력 네트워크 : 한편, 입교생 확보, 취업처 발굴,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법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가 가능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협력체계를 긴밀히 구축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프로그램 측면

① 예비학교 운영 : 예비학교 운영기간은 연 4기수 그룹별 순환제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개편할 경우 매분기 2주 과정이 적정하다. 참여인원은 연중 상시 모집체계 운영을 통해 정원의 120%를 충분히 확보하여 입교 전단계에서 적합한 입교생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② 직업훈련 : 직업훈련 과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비중을 훈련 직종에 따라 30~60%로 축소하고, 취업 시 요구되는 자격증 취득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1년의 훈련과정을 3개월 단위로 습득할 수 있는 세부훈련단위로 구분하여 각 세부 훈련과정별 분반제(A~D과정)로 운영하고, 이수 후 다음 세부과정으로 순환하여 수강하는 형태의 순환제 교육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 숙련도와 의지에 따라 최소 1종 이상의 세부 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조기 취업에 성공하면 조기 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훈련기간과 훈련내용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③ 인성·교양·특화 프로그램 : 인성교육, 교양교육 및 특화 프로그램은 현재 내일이룸학교의 전체 교육과정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육내용이나 교육방식에 따라 현장에서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프로그램 기획시 선호도 조사 등 훈련생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외부 체험이나 실습기회를 확대하며, 훈련생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요구된다.

④ 학업지원 : 학업지원 프로그램은 내일이룸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 시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교 밖 학생의 학력인정제 프로그램에 내일이룸학교의 교육과정을 포함시켜 검정고시 외의 학력인정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내일이룸학교별 학업지원 예산 편성을 확대하고, 주간에 교육시간을 확보하여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방송통신 강의시설 설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력취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⑤ 생활관리 : 공동생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진과 훈련생 간의 합의된 생활규칙

마련, 중도탈락 숙려기간 운영, 입교 초기 적응 프로그램 제공, 통근형 훈련생 교통카드 지원 등의 생활지도가 필요하다. 기숙시설은 훈련생에게 편의성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쾌적한 시설환경 및 정기 보수·유지가 필요하며, 체력단련실 설치, 보건실 설치 및 보건인력 배치 등이 시급하다.

⑥ 상담지원 : 훈련생의 심리적 안정과 진로지도를 위해 공신력 있는 상담자격을 갖춘 상담전문가를 채용 또는 초빙하여 충분한 상담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상담자의 소진예방과 전문성 증진을 위해 수시로 외부의 상담 슈퍼비전 및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사후적응(취업 등) 지원 : 내일이룸학교 재학중 사전에 경력개발계획(Career Development Plan : CDP)을 세워 졸업시 취업에 대비하도록 하며, 취업에 성공한 선배 서포터즈 활용, 인턴십 프로그램 제공, 창업교육, 취업처 알선시 정확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등록된 졸업생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직업준비 상태를 평가하여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이 필요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내일이룸학교 운영실태를 국내외 문헌분석과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학교 밖 청소년 및 국내외 현장 종사자에 대한 심층면접,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서 운영 개선방안을 비롯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내일이룸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는 직업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방식에서 직업훈련과 생활 관리를 별도의 기관이 협업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운영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현재 초기에 한차례 이루어지는 모집 방식도 상시 모집방식으로 전환하고 중도탈락 예방을 위해 예비학교 운영방식을 개선하며 생활 관리를 비롯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연구에서는 훈련생의 선호도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적합 직업훈련 직종을 확대하고 훈련기간의 탄력적 운영과 NCS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과정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중앙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운영개선 컨설팅, 훈련생 서비스 이력 정보 관리, 사업운영 및 안전 매뉴얼 개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 등으로 제안하였다. 이상의 제안들을 적용한다면, 그동안 내일이룸학교 운영상의 난제였던 모집률, 이수율, 취업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훈련생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및 프로그램 측면에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훈련생의 적응과 취업 후 사후적응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내일이룸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취업취약계층인 내일이룸학교 졸업생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청년고용정책 사업들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

는 청년구직활동수당은 2017년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에 국한해 3개월 간 매월 30만원 씩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취업사관학교)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신설된 수당 지원 대상에 내일이룸학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내일이룸학교 졸업생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수당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밖에 청년내일채움공제나 고용촉진장려금 사업도 내일이룸학교 졸업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가 요구된다.

이전의 취업사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면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아왔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했다. 마찬가지로 부처 이관에도 불구하고 공공 혹은 지정 직업훈련시설로 인정되고 이에 기반하여 다른 제도의 공식적인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어서 내일이룸학교 운영기관은 주로 직업훈련기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외에도 기업, 대학, 청소년기관 등 다양한 운영주체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 참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일이룸학교의 운영형태도 단지 직업훈련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습득한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발전시켜 직접 경제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직업기술 개발 및 사회적 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중요한 점은 운영주체가 어떤 기관이든 간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들에게 최적화된 운영체계를 유지하여 효과적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고용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운영기관 형태별 성과 비교분석을 통해 각 운영형태별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일이룸학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유사기관들과의 차별화된 포지션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는 우선적으로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시작된 사업(취업사관학교)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내일이룸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특성을 발휘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역량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에 최적화된 운영 모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인과 달리 발달단계상 단순히 직업기술을 기능적으로 습득하기보다는 운영기관과 훈련생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과 돌봄을 통해 자립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교육적·경험적·발달적 관점에서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내일이룸학교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였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다니는 청소년이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등 통계청 승인통계를 활용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효과성 검증과 같은 보다 과학적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진단하는 작

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내일이름학교를 운영 중인 개별 기관별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점 역시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연구에서는 운영기관별 차이에 주목하여 운영기관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내일이름학교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는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김기현, 하형석, 신인철(2016). 청년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론 I. 경기: 아카데미프레스.
- 박가열, 김병숙, 김시업, 임영식. 김은영, 정미나, 김수정, 장여경, 정경은 (2007). 위기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잡으로: To the Job) 개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박성희 (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원미사.
- 박창남 (2015). 비진학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성공요인 분석: 영국의 PM Training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3): 215-237.
- 여성가족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2017). 취업사관학교 사업 업무매뉴얼.
- 이상봉 (2015). 위기청소년 대상 훈련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운영사례 조사 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 이영민, 박가열, 손기영, 이영현, 임정연, 이수진 (2012). 위기청소년의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취업사관학교 발전방안. 고용노동부.
- 조규필, 김기현, 김강호, 김수진, 윤제현 (2017). 내일이름학교(구, 취업사관학교) 운영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진미석, 손유미, 김도협(2012). 주요국의 진로교육정책: 교육과 고용구조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인재, 이경상, 김정숙, 장근영 (2015).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U.S. DEPARTMENT OF LABOR (2017). ETA(Educational Training Administration) 조직도. <https://www.doleta.gov/etainfo>에서 검색.
- U.S. Department of Labor Office of Job Corps (2016). *Policy and requirements handbook*.

A Study on Improving the Operation of Naeil Irum School for Out-of-School Youth

Cho, Gyu-Pil	Kim, Ki-Hun	Kim, Su-Jin	Yoon, Jae-Hyun
Korea Youth Counseling&Welfare Institut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Korea Youth Counseling&Welfare Institut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ways to improve participation rate, completion, and employment rate of out-of-school youths by presenting concrete plan based on the comprehensive re-evaluation of the existing overall operating system and diagnosis of problems in Naeil Irum School(Formerly, Employment Academy). For this purpose, first,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Naeil Irum School's operation and development plan, and suggested implications. Seco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85 trainees, 12 graduates, 8 dropouts, and 16 employees in the nationwide Naeil Irum School to investigat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f there is any, and to analyze improvement ideas. Third, we visited the Job Corps Center in Washington, DC and Philadelphia in USA and collected relevant data for benchmarking. Fourth,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709 adolescents using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 youth shelter, unauthorized alternative school, and protective disposal facilities including Naeil Irum School. Lastly, an advisory group composed of academics, field, government experts, and youths has been forme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final Naeil Irum School by reflecting their review comments on the first operational improvement plan.

Key words : *Out-of-school youths, Vocational training, Naeil Irum School, Employment Academy*